

키위, FTA기금 지원품목 추가 순항할까

농협, 과잉생산 고착화된 월동무 대체할 특화작목 추진중
농식품부 과수산업발전계획 품목 추가시 FTA 기금 지원
지역 국회의원에 제도개선 요청… 이달 제주도 통해 제출

제주산 월동무를 대체할 전략품목으
로 키위의 집중 육성을 추진중인 제
주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발
전계획에 키위 품목의 추가를 추진
하면서 순항할 지 주목된다. 제주에
선 현재 감귤만 포함된 과수발전계
획에 키위 품목이 추가되면 현재 전
액 지방비가 투입되는 키위 시설하
우스 등에 FTA 과수시설현대화사업
비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.

특히 제주농협은 지자체 차원의
전략작목 육성 품목에 대해서는 현
재 2012년 3월 15일(한미FTA 발효
일) 이전에 조성된 과원에 한해서만
지원중인 FTA 기금 사업비 일부를
그 이후에 조성된 키위 과원에도 특

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
개선도 적극 건의한다는 구상이다.

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제
주지역본부는 ‘제주권 과수산업발전
계획 참다래 추가 계획’을 제주도를
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달중 제출
할 계획이다. 이와 관련해 2일에는
제주도, 서귀포시, 성산일출봉농협,
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 관계
자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농
식품부에 제출할 세부 내용에 대해
협의했다.

FTA 과수시설현대화사업비는
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돼 현
재까지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
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. 제주에선 과

수산업발전계획에 감귤만 포함돼 있
는데, 농협이 키위 품목의 추가를 추
진하는 이유는 제주산 월동무의 과
잉생산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를 대
체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위를
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. 도
내 키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9
년 기준 373ha, 5901t으로 생산량 기
준 전국(2만3200t)의 25.4%를 차지
한다. 전남(41.4%), 경남(28.1%)에
이어 세번째로 생산량이 많다.

키위 특화단지 조성은 경지면적의
65%가 월동무인 주산지 성산일출봉
농협에서 2020년부터 2029년까지
66ha(200농가)를 목표로 추진계획
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서귀포시
가 하우스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다.
제주농협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
키위 유통비용을 2019년 12.2%에서
2024년 30%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
으로 공선출하회 운영 활성화와 신
규조직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

특히 제주농협은 키위가 농식품
부의 과수발전계획 품목에 추가될
경우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
된 키위 과원에 대한 FTA 기금 지
원 외에 추가로 그 이후 신규조성
과원에 대해서도 특례지원 필요성을
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. 최근 열
린 위성곤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
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
했다.

농협 관계자는 “지역별 농업환경
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수
산업발전계획에 키위 품목 추가와
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품
목에 한해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
성 과원에도 FTA기금을 농가에 지
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
는 것이 골자”라며 “2일 관계자 회
의서 제기된 내용을 보완해 8월중
제주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할
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

“빨리 바닷물 빠져라~” 3일 조개를 잡기 위해 서귀포시 성산리 성산리 내수면을 찾은 사
람들이 바닷물이 빠지길 기다리고 있다.

제주 3%대 고물가 지속에 가계 부담

일반주택 전기안전점검
상시·비대면체제로 전환

일반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안전
점검이 방문·대면 점검에서 상시·원
격·비대면 체제로 바뀐다. 1973년부
터 주택·가로등에 설치된 전기설비
에 대해 1~3년 주기로 현장방문 대
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데 코로
나 확산과 1인가구 증가로 육외 비
대면 점검 비중이 2020년 64.2%에
이르고, 전기설비 노후화로 화재 등
사고 위험성은 커져 간헐적 점검으
로는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서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 원격
점검 추진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
은 내용의 일반주택 전기설비 안전
점검제도 개편방안을 3일 발표했다.

개편안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상
시 확인하고, 누전·과전류 등의 이상
신호 발생시 실시간으로 소유자·거
주자에게 통보해 즉시 안전점검을
받도록 유도하게 된다.

원격점검 체계 도입을 위해 신규·
기존시설, 적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
원격점검장치를 단계적으로 보급할
계획이다.

문미숙기자

채소·과실·해산물 등 신선식품지수는 11% ↑
여름철마다 강세 보여온 돼지고기 가격 급등

제주지역 소비자물가가 낙달 연속 3
%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
다.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높아 밥
상에 자주 올리는 돼지고기와 계란,
고등어, 과일류 등 일부 농축수산물
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
보이면서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다.

3일 통계청의 ‘7월 소비자물가동
향’에 따르면 7월 도내 소비자물가
는 전월 대비 3.2% 상승했다. 올 4월
부터 낙달 연속 3% 이상의 고물가
행진이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. 생활
물가지수는 4.3% 올랐다. 신선식품
지수는 11.1% 급등했는데 생선·해산
물로 구성된 신선어개 4.4%, 신선채
소 8.0%, 신선과실은 24.5%의 급등
률을 보였다.

품목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
년동월 대비 12.5% 올랐는데 돼지고
기(14.2%), 달걀(44.9%), 고춧가루

(39.7%), 쌀(13.0), 국산쇠고기
(10.1%), 오징어(16.3%), 고등어
(6.9%), 마늘(47.2%), 시금치
(45.0%)가 오름세를 주도했다. 제철
을 맞은 토마토(10.8%), 복숭아
(13.0%), 참외(17.3%), 수박
(8.8%)도 오름폭이 컸다. 반면 파(-
35.5%), 배추(-10.9%), 감자(-31.2
%)는 가격이 내렸다.

제주산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세가
꺾이지 않고 있다. 농수산물유통공
사가 집계하는 가격정보를 보면 3일
제주시 동문시장에서 판매되는 삼겹
살(냉장·중품 기준) 소비자가격은
100g에 2830원으로 1년 전
(2260원) 대비 25.2% 올랐다. 평년
(2414원)과 비교하면 17.2% 비싼
가격이다. 돼지고기 가격은 나들이
수요가 증가하는 5월쯤부터 오르기
시작해 추석쯤까지는 높은 가격을 형

성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해외
로 나가지 못한 내국인관광객이 제주
로 몰리면서 수요 증가로 높은 가격
을 형성하고 있다.

축산품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일
기준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의 돼지
고기 평균 경락가격은 kg당(탕박 기
준) 6710원으로 전 국 평균
(5168원)보다 29.8% 높았다. 제주를
제외한 전국평균 가격은 4438원으로
제주산과 2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.
올 2월 kg당 4911원이던 제주산 돼
지고기 경락가격은 3월 5249원, 4월
6215원, 5월 6425원, 6월 7130원으
로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

7월 공업제품은 2.1% 올랐는데 휘
발유(21.2%), 경유(20.0%), 등유
(34.0%), 취사용 LPG(15.8%) 가격
이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.

서비스요금은 1.0% 올랐다. 구내
식당식사비(5.0%), 보험서비스료
(9.6%), 생선화(외식 5.7%) 등 개인
서비스요금이 전년동월 대비 1.4%
올랐다.

문미숙기자

“‘제주 척 캠페인’ 중화권 MZ세대 호응”

4월부터 中 대도시서 진행

제주관광공사는 지난 4월부터 추진
중인 ‘제주 척 캠페인’이 해외에서
호응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.

‘제주 척 캠페인’은 중국 MZ세대
를 겨냥해 제주의 문화, 음식, 자연,
여행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
기획한 온·오프라인 결합형 캠페인
이다.

이 캠페인은 올해 4월 중국 남부
지방 대형도시인 광저우를 시작으로
선양, 상하이, 청두 등 중국의 주요
거점도시에서 총 4회 진행됐다. 특히
중국 현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온라

인 생중계, 인플루언서의 라이브방
송 및 포스팅 등 중국 MZ세대가 선
호하는 온라인을 활용해 중국 잠재
개별여행객에게 제주관광의 이미지
를 각인시키고 있다.

현재 ‘제주 척 캠페인’의 온라인
홍보 누적수는 9000만뷰에 이르고
있다.

‘제주 척 캠페인’은 중국 내륙지
역뿐만 아니라 홍콩으로도 확대 추
진되고 있다. 홍콩에서는 ‘척 캠페인
: 제주를 비행하는 척’이란 주제로
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한
달간 홍콩 내 대형 쇼핑몰에서 진행
되고 있다.

이태윤기자

21세기 농업은

미생물 농법으로

가이아 바이오 토양 미생물제제

부스트 팜 ⇒ 탄생

사용방법

○ 20㏔(1말)을 100배(100말)희석 1,000평 관주
○수돗물을 사용시는 하루 지나서 희석

사용효과

○ 질병 예방(세균성, 곰팡이성) ○ 토양 이끼 제거
○당도 · 과중 증가, 저장성 증대 ○ 기형과 감소로 인한 수확량 증대
○토양을 기름지고 숨쉬는 육토로 바꿈

사용시기

○ 거름(퇴비)을 시비한 후 관주 ○ 영양 생장 · 비대기때 관주
○ 엽면시비는 200배로 희석 사용

본 제품을 시제품으로 사용할 농가께서는 연락을 주십시오

010-2633-5349 부영인

공탱이 감귤 유통상사

(주)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·P 010-2633-5349

모든품종

감귤(묘) 분양

종자입등록번호 제18-2002-20-07호

유라 5년생 화분 · 하네조생

● 원터프린스

● 황금향 ● 레드향

● 천혜향 ● 하네조생

● 미니향 · 레몬

● 탐라향 5년생(화분)

● 궁천 ● 일남일호

● 유라1~5년생

● 천전(가와대) 조생

※ 신품종 다수보유

서귀중묘

064-733-7005, 010-6677-5753

제주도정소식

QR

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) 제주 유치 서명운동 참여 안내

(온라인) 제주도청 홈페이지(지(분야별 정보)환경)기후변화대응>COP28제주 유치 서명운동)

(오프라인)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명부 작성 (문의: 환경정책과 ☎710-2853)

2021 제주국제관악제 공연 일정

○ 2021 제주국제관악제 개막공연

- 일시/장소 : 8.8(일) 19:30/ 제주아트센터

·지휘 이동호(서귀포관악단 상임지휘자)

·참여: 서귀포관악단, 제주·서귀포도립합창단 등

·협연: 김지민(피아노), 최나경(플루트), 박기영(기타),

임승구(트럼펫), 정선화(트롬본), 소프라노 한소영,

알토 김혜진, 테너 문순배, 바리톤 김대수

○ 경축음악회

- 일시/장소 : 8.15(일) 19:30/ 제주아트센터

· 지휘 김홍식(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)

·참여: 연향관악단(도립 및 군악단 등 5개팀),

제주·서귀포도립합창단

·협연: 박종성(하모니카), 박승주(테너), 브랜든 최(색소폰),

정미애·조성환(부부가수)

※ 제주아트센터 예매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행사당일

17:00까지

○ 공연장별 공연일정

- 제주문화회관 대극장: 관악단체 공연 8.9~8.15

14:00/20:00, 9회

- 서귀포예술의전당: 관악단체 공연 8.9~8.14 20:00 6회

- 우리동네 관악제: 도내 야외 박물관 등 7개소 8.9~8.14

- 마중물 관악제: 8.6(금) 20:00 서귀포 김정문화회관/8.7(토)

20:00 제주 해변공연장

○ 부대행사: 제주국제관악제 기록물 전시회...8.7(토)~8.12(목)/

문화회관 제2전시실

※ 자세한 사항은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참고(사무국 ☎722-8704)바라며,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의거 일부행사 장소 변경될 수 있음